

미얀마 방정환 기금

어린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

사원학교에서 그림그리기 행사 가져

지난 1월 미얀마 방문 때 사원학교 두 곳에서 가진 그림 그리기 행사에 '달라 96명, 핀나미에 63명, 모두 159명이 참가했습니다. 이후 작품을 한국으로 가져와 미얀마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 김의규 화백에게 심사를 부탁했는데, 경쟁심을 부추기지 않도록 '대상' 이니 '1등'이니 하는 말 대신 '별'을 붙여 주자는 좋은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별을 받은 학생은 45명으로 이달 말 현지봉사자가 시상합니다.

별을 제일 많이 받은 작품(핀나미에/중1년('상와이 닌'))



하모니카 연주와 지도

이혜봉 선생이 사원학교 두 곳을 오가며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고, 선물한 하모니카로 30명에게 두 번에 걸쳐 지도까지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하모니카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했지요.

선생은 오는 7월 하모니카합주단을 이끌고 다시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얀마에도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스텔라 여사의 그네 선물



산과 들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벌 나비가 날아들어 세상은 향기와 기쁨으로 넘칩니다. 사람 사는 곳도 이와 같아서 어린이라는 꽃, 평화와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은 정직하고 올바르기에 이러한 아름다움을 꾸밈 없이 그려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많이 볼 수 있어 매우 고맙고 기쁩니다. 다만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빈자리

없이 색칠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 3 한국에서 시인, 화가 김의규 할아버지가



미국교민 스텔라 여사의 기부금 \$500과 방정환 기금 50만원을 합해 핀나미에 사원학교에 그네를 달아주었습니다. 학생 40명 학교에 처음 생긴 놀이기구라네요.

서영자 여사님 소천



우리 방정환기금회원 중 연세가 제일 높은 서영자 여사님(구상 시인 처제, 구자자명 회원 이모)이 지난 2월 5일 97세로 별세했습니다. 우리 기금 초기부터 기부해주신님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어린이를 아껴주셨습니다. 구자명 회원은 고인의 뜻을

기리며 지난 2월에 가진 미얀마 그림그리기 행사 상상을 위해 30만원을 회사해주셨습니다.

장혜실 이사장님, 30만원 특별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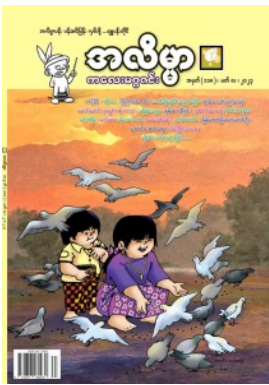
지난 2018년 미얀마 보육원에 컴퓨터교실과 도서실, 놀이기구 등을 기증해주셨던 님(명지춘혜병원 이사장)이 방정환기금의 성장을 기도하며 기부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맙고 귀한 뜻, 새기겠습니다.

어린이잡지를 선물해주신 귀한 분들

()은 입금 월

- 월 112,000원 : 김운원(1,2) 재단이사, 미국 교민)
- 월 60,000원 : 스텔라(1,2) 미국 교민)
- 월 50,000원 : 백진양(1,2)
- 월 30,000원 : 김원경(1,2) 조재선(1,2) 최광규(1,2) 최재화(1,2) 최준수(1,2)
- 월 15,000원 : 김부예(1,2) 김정숙(1,2) 예옥석(1,2) 이애은(2) 이정애(1,2) 조정복(1,2) 최정복(1,2)
- 월 13,000원 : 구자명(1,2)
- 월 12,000원 : 성경희(1,2)
- 월 10,000원 : 강수연(1,2) 강예슬(1,2) 강제숙(1,2) 구은희(1,2) 권지명(2) 김광선(1,2) 김정화(1,2) 김혜명(1,2) 박봉희(1,2) 박정희(1,2) 손경희(1,2) 유문숙(1,2) 정영만(1,2) 정현필(1,2) 조수연(1,2) 최영삼(1,2) 한동훈(1,2)
- 월 9,000원 : 김유재(1,2) 심선우(1,2) 최명숙(1,2)
- 월 6,000원 : 김민진(1,2) 김순이(1,2) 배일택/엄지은(1,2) 윤소암(1,2) 이민희(1,2) 최정임(1,2) 현은옥(1,2)
- 월 5,000원 : 강명희(1,2) 김민호(1,2) 김원숙(1,2) 김원심(1,2) 김정묘(1,2) 박정애(1,2) 배순호(1,2) 서동욱(1,2) 유주희(1,2) 윤신숙(1,2) 정의정(1,2)
- 월 3,000원 : 강제숙A(1,2) 김미경(1,2) 김병진(1,2) 김순자(1,2) 김연수/김인숙(1,2) 김연옥(1,2) 김원애(1,2) 김원희(1,2) 김장순(1,2) 김종배(1,2) 김주환(1,2) 김홍원(1,2) 김홍주(1,2) 노길용(1,2) 문해성(1,2) 민성숙(1,2) 배성재(1,2) 배수현(1,2) 배재영(1,2) 배순석(1,2) 배진영(1,2) 백마강(1,2) 백정현(1,2) 서판임(1,2) 손미연(1,2) 송광호(1,2) 심아진(1,2) 심혜숙(1,2) 안영실(1,2) 오세현(1,2) 오순희(1,2) 오승선(1,2) 윤치영(1,2) 이미경(1,2) 이수원(1,2) 이연희(1,2) 이유진(1,2) 이은옥(1,2) 이풍연(1,2) 이현숙B(1,2) 이현옥(1,2) 이현주/최희재(1,2) 임승규(1,2) 정성용(1,2) 정미선(1,2) 김주환(1,2) 조말연(1,2) 최광선(1,2) 한영원(1,2) 홍복표(1,2) 홍혜경(1,2)

김민호 선생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3월호 어린이잡지 표지

매월 1,000부 기증

초·중학교 113곳, 보육원 24곳, 모두 137곳의 어린이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의 방정환 선생처럼 미얀마의 전기 없는 농촌학교와 보육원에 어린이잡지를 보내요.

방정환기금 입금계좌

국민 640601-04-006175
신청전화 : 02)393-0661
(월 3,000원부터)

